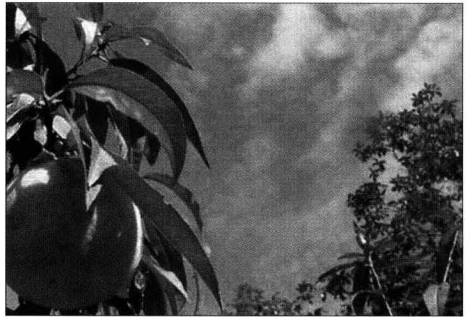


아티스트북을 만들며 산다는 것은

책을 표현하는 것은
내 행복의 비결

차정인(일러스트레이터·북아티스트)

20년 가까이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면서, “살림하면서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는 부러운 시선을 많이 받았다. 일면 행운이었다. 이제 고3, 중2가 된 아이들을 별 탈 없이 키웠고, 공부하던 남편에게 도움이 되었고, 집 안팎에서 주어진 역할들도 그런 대로 눈치껏 챙길 수 있었다. 대학 강사 노릇도 10년 넘게 했다. 잠시 동안 ‘충전’을 위해서 늦깎이 유학도 했고, 그래서 ‘북아티스트’라는 명함도 얻었다. 최고 성능, 최대 속력은 아니라도 정말 열심히 달렸다.



건강에 경고신호가 오고 나서야, ‘가지치기’를 시작했다. 열심히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기! 강의를 접었다. 가장 힘겨운 부분을 정리하니 훨씬 가뭄하다. 그리고 보니 포기할 수 없는 건 ‘표현하기’다. 그것도 책 주변을 서성거리며 표현하기. 나는 그림책에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아티스트북을 만든다.

그림책에 그림을 그리는 일은 글 작가가 글로 상상한 이야기를 연속성 있는 그림으로 다시 구성하는 작업이다. 캐릭터와 그가 활동하는 무대를 만들고 이야기가 흐르게 하는 것은 신세계를 만드는 창조의 작업, 흥미진진하다. 이 일은 딱딱한 일상 속에서 무미건조해지는 나를 ‘아이처럼’ 순수하고 생기 있게 만들어 주었고, 고맙게도 물질적인 보탬까지 주었다. 내가 기획해서 쓰고 그리는 그림책이 꿈이지만, 언제나 글은 자신이 없다. 그래서 항상 글 작가와 출판사 편집자들과 함께 일하게 되는데, 전문가들과 함께 좋은 책을 만들 수는 있어 좋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의도에 신경이 쓰이게 마련이다.

하지만 책이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게 얼마나 행운이고 위안인지...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티스트북 만들기이다. 손으로 책을 만든다는 것은 요즘의 전자시대에 퇴행현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물리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아주 특별한 스킨십을 경험하게 한다. 작은 더미북이나 보잘 것 없는 소재들이 마침내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

내게 아티스트북은 참 폭넓은 이해심과 감성을 가진 친구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 눈높이에 맞춰주니 그림이나 어눌한 문장으로 얘기를 시작해도 괜찮다. 아티스트북은 재주가 많아서, 필요하다면 마술처럼 시간도 마음대로 만들거나 멈추게 하며 새로운 공간, 숨을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어떤 이야기는 상관없이 듣고 답해주고, 두서 없이 한 이야기들을 조용히 순서 바꾸어 정리해 준다. 선불리 가르치려 하지 않지만 얘기를 하다보면 저절로 지혜롭게 생각하도록 만든다. 처음에는 내가 책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책이 내게 속삭이는 것이 느껴진다. 그렇게 둘이서 조곤조곤 수다를 떨고 나면 시원하다.

또 그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소중한 친구와 돈을 연관시키는 일은 어울리지 않으니 물질적 보탬은 기대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에게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책에 그림을 그리고 아티스트북을 만드는 것은, 아이 같은 순수한 생기를 얻는 일이다. 때로는 침착하고 조용히 생각에 잠기고 때론 유머로 삶의 문제를 털어내면서, 나이 40대 중반의 무게에 눌릴 때마다 단순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비결이다. *******